

광주 고려인 후손들의 함성...“우라 코리아!”

SOCIETY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106주년 3·1절 기념식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 항일독립운동 정신 되새겨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했던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습니다.” 106년 전 외쳤던 독립의 함성이 독립투사 후손의 목소리로 다시 뜨겁게 울려 퍼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1일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국의 광복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3·1절 만세운동 재연 행사와 1923년 연해주에서 열린 고려인 만세운동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에는 검은색 두루마기, 한복 등을 입은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든 채 모여 들었다.

이날 행사는 고려인마을 주민과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례, 3·1절 노래 제창,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 앞서 3·1만세운동 재연 거리행진은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기 위해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에서부터 흥분도 공

원까지 고려인마을을 항일 독립로를 따라 진행됐다.

시민 200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은 장관을 연출했다.

100여년 전 선조들의 항일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이어갔다.

해마다 치러지는 고려인마을의 행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의미와 함께 나라를 잃고 떠돌았던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조상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고려인 후손들이 독립선언서 낭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덴마리아씨(23·여)는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영광스럽고 자랑스롭다”며 “1919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쳐 항쟁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고려인마을 어린이



1일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과 월곡2동 주민들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합창단과 고려인마을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희망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가자 전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고려인 마을 관계자는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만세운동 재연 행사는 과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고려인

선조들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 그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가는 뜻깊은 행사로 국내외 고려인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도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이 거행됐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을 주제로 일제강점기 광주 만세운동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활약상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도 역시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58 달맞이 09:13
 맑음 18:27 달맞이 18:45



광주	1~7
목포	2~7
여수	2~6
순천	2~7
구례	2~9
광주	2~7
임도	2~8
진남	2~5
고흥	2~7
진도	2~7

목포	미물(고)	05:12 / 17:22
	쌀물(저)	10:15 / 22:32
여수	미물(고)	11:58 / --:--
	쌀물(저)	05:43 / 18:02

북구,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착공

내년 말까지 199억 투입...빗물 2만7000t 저장

광주 북구가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5일 옛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문흥동 우수저류시설의 착공식을 개최한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도로 배수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재해예방시설이다.

북구는 지난 2020년 여름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 6개의 사업에 선정돼 총 1393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을 2029년 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번에 착공하는 문흥동 우수저류시설은 지대가 낮고 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해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침수에 취약했던 문흥동 상당 일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광주2C 일원(문흥동 257-5번지) 지하에 설치된다.

북구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



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다.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해 최대 2만 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한다.

이는 염주수영장 11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0년 동안 북구에 내렸던 가장 많은 강수량도 감당할 수 있어 문흥동 상당 일대에 침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항구적 안전도시 북구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문흥동 우수저류시설을 착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최근 심각한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잦아져 침수 피해 위험이 늘어난 만큼 우수저류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광주 동구 합계출산율, 5개 자치구 중 '1위'

2024년 0.86명...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성과

광주 동구의 합계출산율이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 동구,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광주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구·남구 0.59명, 광산구 0.77명, 북구 0.72명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지난해 광주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2023년의 0.71명에서 0.8% 감소했지만,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도 0.78명에 비해 11% 증가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추진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20만원) 지원, 신생아 바구니형 카시트 대여,

등산(백일산) 대여, 출산축하용품(미아방자용 은목걸이) 증정,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동구 맘택시 운영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운영해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있다.

임택 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아아 낳아 기르기 좋은 행복 동구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송정역 만남의 광장' 대국민 의견 수렴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머물고 싶은 명소를 만들기 위해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광주송정역 만남

의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송정역이 호남의 대표 관문이라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광주송정역 만남

의 광장’ 조성할 만남의 광장 테마(주제) 유행과 시설물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 등을 묻는다. 온라인 조사는 광산구 누리집, 공식 누리소통망, 광주송정역 등에 비치된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 등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조사는 광주송정역 대기실에서 이용객 설문 방식으로 한다.

광산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편의시설과 상징 조형물 설치, 주변 상권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소통 공간 활용 등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전반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매년 반복되는 폭주족 출몰...시민 안전 위협

3·1절 수완지구 일대서 무법질주...역주행 등 활개 구경꾼 환호성도...“위험천만 불법행위 반복 안 돼”

“폭주족들의 곡예 운전은 볼 때마다 머리가 쭈뼛 서고 손에 땀이 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국경일마다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위험천만한 폭주족의 질주 행위가 을사년 3·1절에도 되풀이됐다.

경찰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폭주족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도로를 질주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지난 3월1일 오전 1시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사거리.

곳곳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귀를 찔렀다. 이후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폭주족들은 과속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휘청거리는 곡예 운전으로 주변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빠른 속도로 중앙선까지 침범, 역주행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했다.

신호를 무시하는 폭주족들이 늘어나자 도로 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후 도로는 불안하고 혼란한 무법지대로 변했다.

여기에 구경꾼까지 합세해 환호하자 폭주족들의 질주는 더욱 과감해졌다.

도로 한편에는 10대에서 20대로 보이는 학생 10여명이 폭주족들을 보며 ‘또 언제 오나’, ‘땀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점단지구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인에게 영상통화로 폭주족들의 출몰 위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 단속과 CCTV를 피하고자 골목길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1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폭주 이륜차량들이 경찰의 예방활동에도 아랑곳없고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로 숨어드는 폭주족도 있었다.

이날 광주경찰은 광산서 안전조사계 38명을 포함한 총 148명과 순찰차 등 52대 장비를 투입해 폭주족들을 단속했다.

다만 추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해 현장 적발에 나서지는 않았다. 광주 전역에서 총 6건의 폭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주 운전을 경계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5일 서구 관천사거리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구경하던 10대 3명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다.

문성필 광산경찰서 교통과장은 “폭주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도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날 단속으로 난

음주사고 낸 불법체류자 벌미

마네킨...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혀, 3일 광주 서부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몽골 국적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주행하다 광주 서구 관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A씨의 음주사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벌미가 잡혀.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또 A씨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사실까지 들통이 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윤용성 기자 yo1404@

폭·음주운전·차량 불법개조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48건을 적발했다.

변호관을 고의로 떼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운전자 9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허용 수치(이륜차 105dB·승용차 100dB)를 넘긴 굉음을 낸 운전자 2명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 6건(면허 정지 3건·취소 3건)을 적발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 1명도 검거했다.

이밖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전남경찰도 이날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을 집중단속, 음주운전 5건(정지)과 신호위반 등 과태료 처분 대상 8건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